체감물가 5년만에 '최고 수준' 급등

과일류 전년대비 2.2%·신선식품 15.7%·휘발유 18.2% 상승… "추가적 상승 변동요인 상존"

팍팍한 서민의 살림이 장바구니 가격의 상승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석유류 상승과 더불어 과일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계 체감물가가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2년 6월(2.2%) 이후 가장 높았는데, 체감물가는 이보다도 더 높았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다.

품목 별로 들여다보면 과일가격 상승폭이 심상치 않다.

특히 귤 가격은 지난해 12월 16.2% 오르는데 그쳤지만, 1월 39.3%, 2월 63.3%, 3월 106.2% 뛰어올랐다. 석달 만에 가격 상승폭이 7배 가까이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10% 감소했던 오렌지 가격도 석달 뒤에는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과도 3.6%에서 4.9%로 가격 상승폭이 늘었다.

포도(9.4%)와 바나나(5.3%)의 경우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선식품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7.5% 올랐는데, 하위 항목인 신선과실이 15.7% 상승한 것도 꿈틀대는 과일값을 보여준다.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도 체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3월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12.4% 상승했다. 경유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이보다도 높은 18.2%, 15.8% 씩 올랐다.

통계청이 제시한 지출목적별 동향에서도 교통 가격이 전년 동월에 비해 6.4%나 올랐다.

식탁에 주로 오르는 육류 가격 상승도 체감물가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닭고기 가격이 11.3% 올랐고, 돼지고기 가격도 8.0% 올랐다.

이 밖에 오징어(45.6%), 당근(71.8%), 감자(14.5%), 무(17.5%), 콩나물(8.3%) 등도 전년에 비해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끌어올렸다.

통계청 관계자 "최근 유가 조정 움직임, 농산물 가격 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국제유가 변동, 가뭄 등 봄철 기상재해 발생 여부 등에 따른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신규직원 임용장교부식 부모님과 함께

전북농협 "유능한 농협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 지켜봐 달라"

전북지역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4일 신규 채용된 직원 11명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다. 이날 교부식에는 신규 직원들의 부모님과 가족을 초정했다.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농협은행 직원을 상징하는 농협 배지를 자녀들에게 직접 달아주며 사회초년생으로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했다.

특히, 신규직원들은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감사의 동영상 편지와 함께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으며 참석한 부모님들은 감사의 눈시울을 적셨다.

최용구 본부장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키운 귀한 자녀를 농협은행에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유능한 농협인과 사회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재용 기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 "현재 삶 만족하지 않는다"

평균 연봉 2300만원…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 시급

국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건설현장 근무를 계속하길 원한다고 밝혀 고용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는 최근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근로자 14.9%만이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7.2%에 달했다.

반면, 낮은 만족도 수준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힌 근로자는 72.3%나 됐다.

이는 건설현장 일용직이 우리 사회 서민들의 고용 안정에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고용 수요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20대 근로자만이 '다른 일이 생길 때까지만 하고 싶다'(35.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는 건설근로자가 본업이라기 보다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 대상 근로자들의 평균 일급은 15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간 평균 근무일이 149일이어서 '연봉'으로 계산하면 2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들의 구직경로는 팀.반장 등 인맥을 통한 구직이 85.4%로 압도적인 수준을 보였다. 주된 직종이나 주특기는 '일반공(보통인부)'가 13.7%로 가장 많았고 형틀목공(12.6%), 철근공(8.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이내 건설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했다는 비율은 16.1%에 불과했다. 훈련 경험자들의 최근 3년간 참여한 횟수 역시 1.8회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훈련 참여자 62.9%는 '기능이 향상됐다'고 답해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근로기록이 있는 퇴직공제가입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다. /안재용 기자

전북우정청, 우체국돌보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노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전북우정청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우체국돌보미서비스가 부안군·장수군·고창군에 이어 완주군에서도 시행된다.

전북우정청은 4일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김병수 전북우정청장, 박성일 완주군수, 이관수 완주우체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우체국돌보미서비스(Post Care Servic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소외된 노인문제 등이 국가적 이슈로 제기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곳곳을 정과 신뢰로 누비는 우체국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우체국돌보미서비스는 전북우정청에서 독자적으로 기획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서비스로,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이 농촌지역 홀로 어르신들을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확인과 말벗되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자녀와 지자체에 알려주는 신개념 서비스이다.

지난해 부안군·장수군 지역에서 처음 실시돼 자녀들과 지자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고창군에 이어 완주군에서도 시행하게 됐다. /안재용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지역회장에 임선명 이사장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계의 대표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13명의 지역회장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 지역회장제를 도입한 이후 제7대에 해당하며, 건실한 기업 운영과 덕망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인을 지역회장으로 위촉했다. 위촉지역은 전북지역을 포함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가 설치된 13개 지역이다.

제7대 전북지역회장으로 위촉된 임선명 지역회장은 2008년부터 전북콘크리트조합 이사장을 맡아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 콘크리트 제조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2년 임기동안 전북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자 수시 접수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마인드 강화와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자를 수시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자 등이며 광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 달 11개 분야에 79명의 전문가를 선발했고, 한 업체당 2일 동안 현장 실무중심의 밀착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점 도출과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는 청탁금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화훼.요식업종의 분야를 한시적으로 15업체 정도 특별 컨설팅을 실시해 매출감소의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다.

컨설팅은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www.jbso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717-1302)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Start-up!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라'는 주제로 '4.0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공공데이터 활용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분야이며, 참가대상은 예비창업자와 2014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창업기업이다.

입상자에게는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상장과 함께 총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되며, 신보의 보증.투자.보험.컨설팅 등 융.복합 지원, 하반기 'Start-up NEST' 서류심사 면제, 데모데이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부문 상위 2팀에게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안재용 기자